

울산단지,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추진

생산성 향상에 소재 개발 ... 에너지 안정공급에 저탄소 녹색성장도

울산석유화학단지가 석유화학 사업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8월20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울산석유화학 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계획을 설명했다.

최병권 경제통상실장은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개발,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등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드맵의 추진방향이 될 핵심사업은 에너지 효율진단, 인프라 확충, 공단 고도화, 연구개발 확대, 공단 리모델링, 법제도 개선, 안전관리 강화, 국내외 클러스터 구축 등 8개 분야”라고 말했다.

또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신항만 건설,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화학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석유화학공업협회와 화학기업 경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2009년 6월에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추진기구를 구성했고 2010년 5월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0>